

다시 배운 ‘말하고 쓰기’

김기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글이나 말을 사용하게 된다. 아무리 우수한 연구결과라도 말이나 글로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앞선다. 좋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를 타인에게 정확하고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있던 이 때, 마침 나의 이러한 욕망을 해소해 줄만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 -강의법에서 논문작성법까지->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워크숍은 <Presentation 기법>, <강의 개선사례>, <올바른 영어 논문 어떻게 작성 하는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김재필 교수님(공과대학 재료공학부)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재료공학부 김도연 교수님의 <Presentation 기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교수님은 재료공학부 내에서도 시원 시원하시면서도 명확한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다. 교수님께서 Present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청중을 파악한 이후에 발표자가 무엇을 강연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하라는 것이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문헌 조사를 통해 많은 배경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실제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과정에서 겪는 갖은 노력이나 연구의 어려움을 논문이나 발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험 방법이나 배경 지식 설명에 너무 많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논문을 읽거나 발표를 듣는 사람이 발표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김도연 교수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발표를 듣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파악한 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심한 후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발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 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좋은 강의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교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귀에 쫄쫄 들어오게 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강의 개선사례>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강의법에 대해 조선해양공학과 신중계 교수님께서 강연하셨다. 지금까지는 학생으로 항상 수업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내가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다. 학생입장에서는 항상 재미있고, 뭔가 머릿속에 남는 강의를 바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강의를 될 수 있을까? 너무 재미만 추구하다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학문적인 내용만 강의하다가는 듣는 이가 지겨워하고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이다. 강단에 서기를 바란다면 누구나가 한번쯤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교수가 된 후의 강의를 아니라 당장 눈앞의 과제 발표나 학회발표에서 어떻게 강연하는 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인상 깊은 발표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었다. 그런 나의 질문에도 역시 교수님의 강연에서 맞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FOC 통신원

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역시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을 하는 것이다. 듣는 대상이 학생이든 아니면 학회에서 여러 전문가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눈높이인 것이다. 이 학생이 왜 이 강의를 들을까 또는 저 전문가들이 나의 발표를 왜 들으러 왔을까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듣는 이는 A라는 사실을 바라면서 듣는데, 발표자는 B라는 사실을 발표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강연이 될 거라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던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듣는 이의 눈높이인 것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진부하지 않고 독창적이면서 호감을 갖도록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그 재미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느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한 호감과 열정으로 인해 생기는 지적인 재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도록, 발표자는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기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탐구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신중계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후에 '어떻게 올바른 영어논문 작성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순천대 김형순 교수님의 강연이 이어 졌다. 나는 이 워크숍이 있기 전에 이미 같은 제목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을 정도로 영어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글로 글 쓰고 표현하기조차 힘든 공대생에게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더구나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된 논문을 외국 학술지 등에 투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 논문 쓰기에 관심과 고민이 많았던 나에겐 이 강연은 학과 수업을 빠져 가면서까지 반드시 듣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대가 커서 그런지 막상 강연에서는 기존에 책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책을 요약하는 수준의 강연이어서 실망스러웠다. 평소에 관심 있던 책의 지은이가 직접 강연을 하는 거라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쉬웠다. 그래도 이 강연을 통해서 책에서 간과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책을 사전에 접해 보지 못한 이들에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이었다. 두 시간여 동안 이어진 김형순 교수님의 강연을 끝으로 워크숍은 막을 내렸다.

이 날 이루어진 세 강연으로 인해 내가 연구한 바를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학회에서 발표하고, 강연하고, 그리고 영어 논문을 직접 쓰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은 실제 글쓰기나 발표에 대한 강연이라기보다는 글쓰기에 필요한 이론적인 사항만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쓰거나 발표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적용될 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워크숍이 다시 개최된다면, 이론적인 강연 후에 참가자들이 실제로 글쓰기나 간단한 발표, 혹은 이메일 등으로 글을 보내어 어느 부분이 부족한 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언을 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워크숍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과 수업이 많은 평일 수요일 오후에 이루어진 워크숍이라, 수강 과목과 중복이 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가 없었다. 비교적 수업이 없는 금요일 오후에 개최되었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강연 그 자체는 발표와 글쓰기를 앞 둔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